

# 37

## 조선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간염, 다발성 간암, 발적성 위염

성별	남	나이	48세	직종	납재부 배재업무	직업관련성	낮음, 낮음, 높음
----	---	----	-----	----	----------	-------	------------

### 1 개요

신○○은 D사에 1982.4. 입사하여 납재부 배재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5.8. 만성간 질환을 진단받고, 2000.8. 발적성 위염, 간경화, 다발성 간종양이 발견되었다.

### 2 작업환경

신○○은 1982.4. 입사한 뒤 납재부 배재업무중 지게차 신호수 겸 호선자재업무 선별투입 관련 업무를 했다. 2년 뒤 특수선생산부 배재반으로 이동, 반장 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1986.4. 가공부 강제과로 이동, 블록조립 배재업무와 전처리장 및 하역장에서 12시간 맞교대근무를 했다. 연 총작업일수는 271~292일(1995년 이후 기록), 연장근무는 총작업일의 73~83%, 연장시간은 하루 평균 2~3시간이었다. 한 달 평균 작업일은 24~26일, 야간작업은 10~12일, 야간작업 일수는 총 작업일의 40~56%였다. 1999.7. 측정된 작업환경측정 결과 유기용제 종류는 IPA, Toluene, Xylene, Ethylbenzene, 2-Ethoxyethanol 등이며 혼합유기용제 노출수준 0.07 정도였다.

### 3 의학적 소견

신○○은 술은 10년 간 소주 2병, 주 2회였으나 1991년 이후 금주하였으며, 담배는

15갑·년이였다. 1986년부터 B형 간염 건강보균자였는데, 1988, 1993, 1994, 1997년에 간기능 저하가 나타난 적이 있으며, 1995년 복부초음파상 만성간질환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2000.8. 만성 발적성 위염, 간경화, 다발성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이다. 과거에 2년 간 갑판장, 3년 간 육군복무, 3년 6개월 간 항해사를 하였고, 1982년 D사에 입사하였다. 탑재부 배재업무와 가공부 강재과 업무를 수행하였다.

#### 4 결 론

신○○의 발적성 위염, B형 간염, 다발성간세포암은

- ① 교대(야간)작업과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과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 ② 입사 이후 작업에서는 간암 유발 화학물질에 노출된 바 없으며,
- ③ 만성 B형 간염은 간경화 및 간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 ④ 입사 초기부터 B형 간염 보균자로 간기능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으며, 유기용제 노출이 만성간염이 간암을 발병시키는 경과를 촉진시켰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⑤ 교대작업 및 장시간 근무가 간암의 발생을 증가시키거나, 촉진요인으로 보고된 바 없으므로,

발적성 위염은 교대작업과 장시간 작업으로 인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다발성간세포암은 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것은 아니며 B형 간염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